

대행 스님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충족하게 담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릇 아닌 그릇이 있다면 담아질 것이고 그릇이 없다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내면세계를 숭상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대성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서로가 공생, 공식 하며 공용, 공체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불(佛)이라고 하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서 이어 가는 바 없이 이어 가며 꽃과 꽃, 나무와 사람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전통신으로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의 물질적인 문제 50%는 깨지고 부서지고 변하고 화하고 죽고 살고 이렇게, 사대로 왔다가 사대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자성불이라는 것은, 본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는 그 자체의 근본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그런 데서는 변함없는 영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자성불이기에 갈 것도 올 것도, 또 미래로 갈 것도 과거로부터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수박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과거의 씨를 찾으러, 자기 씨를 찾으러 그 심은 자리로 가야만 옳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씨가 화해서 싹이 되고 싹이 화해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과거에 심었던 그 씨와 똑같은 씨가 바로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아직 심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해서 찰나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없다고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걷기는 걸었는데 뒷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사 것을 다 놓고 그냥 여여하게 지금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한 찰나를 뒤집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온통, 오늘날에도 타의에다가 내 영혼의 근본 생명을 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교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지 마세요. 불(佛)은 생명이요 교(敎)는 말씀이니,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알라신교 따로 있고, 일본 불교가 따로 있고 티벳 불교가 따로 있고 통일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를 벗어날 수 있게끔 체가 없는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그 근본을 알아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움죽거리지만 정신적으로 움죽거려야만이 남과 나를, 천체를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노동이라고 하고 정신의학, 정신과학, 천체정신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일체 만 가지 분야가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부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분야니까 요것이 제일 좋다', '요것이 제일 잘났다' 하고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승복이라는 것이 바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자체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 보이지 않는 데 무의 세계 50%에서 바로 유의 세계 50%로 발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세계 50%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산다 하면 50% 무의 세계에 걸려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승려든 승려가 아니든 가톨릭교도든 기독교도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주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벌어진 것이니 자기부터 믿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불가에 오신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통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지금 시쳇말로 하겠습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입력이 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통은 천체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데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천이통은 무전통신기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족통은 팩시밀리,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모습 없는 모습, 천백억 화신이라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을 바로 팩시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팩시밀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탐지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심안으로 보는 그 자체, 천안통을 바로 천체망원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심안이라는 것은 천체를 보고도 남음이 있지만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없는 그 다섯 가지의 오신통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면세계…, 간단히 비유해서 말을 해 본다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 몸속에 16억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억이라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하나의 체가 없는 마음이 한생각을 낸다면 바로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안팎 경계를 도모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바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묘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한 생각에 천당도 갈 수 있지만 한 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만 남한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마음으로써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물질로다 조금 보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끝 간 데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리때를 들고 스님네들이 공양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